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주의보

통증·발열·근육통·두통 등
접종자 20% 안팎 시달려
2~3일 지속땐 병원 다시 찾아야

#.회사원 박인모(47·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지난 25일 오후 아들(9·초등학교 2학년)과 함께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이상 반응이 나타나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날 밤부터 주사를 맞은 팔 부위가 벌겋게 부어 오르고, 미열을 동반한 몸살 기운까지 동반한 것이다. 아들도 상태는 약했지만, 접종 부위가 부어 오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아들과 함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10명 중 1~2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과민반응으로, 하루 정도 충분히 쉬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시즌을 맞아 접종 후 발열과 피로감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 후 충분한 휴식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오르는 발적(發赤) 현상과 통증 등이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접종을 받은 사람 중 20% 안팎에서 나타나며 보통 접종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접종자 중 1% 미만에서 나타나는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이 있으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접종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접종 전 건강상태가 나빴거나 만성질환 등을 보유한 환자들이 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접종을 받을 경우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의 조언이다.

부작용 없는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컨디션이 좋고 몸이 건강한 날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접종 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주사를 맞은 뒤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의 유·무를 살핀 뒤 귀가해야 한다. 특히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목욕과 무리한 운동 등은 삼가야 한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은 접종 후 무리한 신체활동으로 발열과 피로감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유아 가운데 접종 후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고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일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대부분 1~2일 정도면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상반응이 계속될 경우엔 접종기관을 재방문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독감 예방 백신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으로 나뉜다.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두 종류, B형 바이러스 한 종류가 포함돼 있고 4가 백신에는 여기에 추가로 B형 바이러스 한 종류가 더 포함돼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는 다음달 22일까지 3가 백신에 한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지는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이면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파 몰린 광주세계김치축제 27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시민들이 김치를 구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흡연, 여성은 늘고 남성은 줄어

지난해 7.5%로 1.5% 증가
38.1%로 1.4% 감소
전자담배 사용 꾸준히 늘어

여성 흡연율은 오른 반면 남성 흡연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여자 흡연율이 2017년 6.0%에서 2018년 7.5%로 올랐고, 같은 기간 성인 남자 흡연율은 38.1%에서 3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현재 흡연율은 22.4%로 2017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전체적인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최근 정부가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중단을 권고한 전자담배 사용은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됐고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2.3%, 2017년 2.7%, 2018년 4.3%를 기록했다.

2018년 여성 흡연율은 7.5%로 2017년 6.0%보다 1.5%포인트 증가하면서 지난 20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흡연율을 기록했다.

반면 남성 흡연율은 2018년 36.7%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된 1998년(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달 19~27일 '주민의견' 접수

광주시 북구의회가 오는 11월에 열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북구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될 행정자치 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접수해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접수는 북구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로, 북구의회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접수한 내용은 구 행정에서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 등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시 활용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검,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 등 4명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수갑·포승 사용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동생에게 전 재산을 뺏긴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검사의 업무수행이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이진순(38·사법연수원 40기) 광주지검 검사와 고현욱(36·변호사시험 4회)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 등 검사 4명이 추진한 4건의 업무 사례를 올해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중 가장 모범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3분기 우수 인권감독관에는 구례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한 박기종(48·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인권부는 올해 1분기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등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해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검사는 개선안을 통해 보호장비 사용 시 점검하는 방식을 세분화하고, 일선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지적장애인 A씨의 친동생 등이 A씨의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뒤 후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동생 등을 기소했다.

또 A씨가 횡령당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후견인의 도움으로 장애인 복지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힘을 보탰다.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추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 인권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경, 선박·양식장 등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장과 기관장 등 상급 선원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선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행위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선원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빼앗거나 하선 요구를 묵살하고 선원을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9	달뜸	06:31
해짐	17:43	달짐	18:05

쌀쌀한 아침기온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7/19	보 성	구름많음	3/18
목 포	구름많음	10/19	순 천	구름많음	7/19
여 수	구름많음	11/18	영 광	구름많음	6/19
나 주	구름많음	4/19	진 도	구름많음	7/19
완 도	구름많음	9/19	전 주	흐림	7/19
구 례	구름많음	4/19	군 산	흐림	7/19
강 진	구름많음	5/20	남 원	흐림	4/19
해 남	구름많음	4/20	흑산도	구름많음	13/20
장 성	구름많음	4/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1.5
	먼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남서~서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남~남서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10	01:50
	19:35	14:19
여수	02:37	09:05
	15:04	21:16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9(화)	30(수)	31(목)	11/1(금)	2(토)	3(일)	4(월)
12/18	9/19	9/21	11/21	11/20	10/19	9/19

광주대 산학연협력센터
'R&D바우처 사업' 선정
내년까지 4억원 정부지원금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최근 '2019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사업' 2개 과제에 선정돼 2020년 10월까지 총 4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전기전자공학부 김정근 교수의 '소형 마이크로인버터를 이용한 가정 내 발전량 확인용 고효율 미니 발전소 시스템 개발'과 컴퓨터공학과 김희철 교수의 '스마트오피스 환경에서 실시간 음성정보 보호 장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이다.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새로운 업종 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대 김승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리뉴얼된 객실과 도심 속 휴양시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져, 온천 사우나가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1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도심 속 양질의 온천수 사우나
· 각종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